

월요광장

문화도시와 인문적 사고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21세기의 지구촌은 ‘도시’와 ‘문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분주하다. 1985년 아테네에서 시작된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이 2004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든버러, 문학)를 거쳐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가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최초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광주시민들은 예향의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 문화도시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농업혁명으로 인한 정착생활은 인류문명의 기반이 되었고 문명의 진보는 도시문화를 고도화하였다. 산업혁명은 도시문명을 고도화시키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 결과 현대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Urbanization)된 인류는 차별화 된 도시성(Urbanism)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벌였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중세의 자치도시들이 벌였던 경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21세기에 재현된 듯하다. 도시는 인류문명의 요람이었고 도시문명의 원동력은 문화적 다양성이었음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다양한 만남의 장소였다.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도시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들을 찾아낸다. 그러나 근대 도시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초기의 도시문명이 ‘도시라는 공동체의 본질’에 충실하였다면 산업화 이후의 근대 도시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한 근대 도시는 풍요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발전하였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근대 도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간이었다.

그 결과 삶의 총체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시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가 만들어졌다. 도시의 본질이 사라진 도시, 동질화 된 공산품이 되어 버린 도시는 도시의 인문적 사고를 상실하였다. IT인프라로 무장한 현대 도시는 U-City를 넘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팬옵티콘(Panopticon)이 되어 갔다.

실용성이라는 명목으로 도시공간을 편리하고 역사적 공간의 사용 가치를 붕괴시키는 재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자유로운 사고도 창의적 아이디어도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도시모델이 창조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공간의 확보는 문화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화의 세기’가 도래하자 인류는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현대인의 생활공간인 도시는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복원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었다. 인류는 도시와 문화적 삶의 공생 관계를 확인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한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문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도시공간의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목적적 공간이 상생의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중앙집권적 문화 권력이 분권화되었다. 인문적 도시공간이 시민의 문화 수준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밝혀졌다.

마침내 지구촌에서는 문화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술공학의 답론을 실천하다 쇠락의 길을 걷던 서구의 도시들

은 재빠르게 문화도시를 선언하였다.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서구의 도시들은 문화도시로 전환하였다.

유럽에서 시작된 문화도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자 지구촌의 도시들도 문화도시를 표방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광주! 어느 것 하나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화도시 광주의 과제들이다.

문화도시 광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인문적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칼비노(Calvino)에 따르면, 도시는 도로나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아닌 기억, 욕망, 기호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문화도시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시, 꿈을 자극하는 도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꿈을 키우고 도시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도시 광주의 인문적 사고를 복원하는 시발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면 꿈꾸는 문화도시 광주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시가 될 것이다.

社說

문화전당 결국 ‘내용’도 없이 개관하게 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 9월 전면 개관된다. 그러나 공연 전시 운영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개관부터 하고 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월 인사청문회에서 “전당이 넓어 한꺼번에 내용물을 채우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단도 지난날 24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이 돼야 내용물을 계획대로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점진적인 운영안이 굳어지자 시민과 문화계는 크게 반발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주 도심 재생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당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실망감도 크다.

특히 광주지역 문화예술계는 “전당 사업 주체인 문화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물지 않을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콘텐츠를 충실하게 채우지 않고 개관하는 것은 상품도 없이 백화점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개관 대신 5개 원의 순차적 개관 등 점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오로지 개관만을 위한 개관은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괄 컨트론타워 기능을 맡을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이 9개월째 공석 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당의 운영주체 문제를 둘러싼 지역과 중앙의 이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문제부터 서둘러 해결함으로써 전당이 충분한 콘텐츠를 갖춘 가운데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잇따른 농기계 사고, 대책 마련 절실하다

농촌에서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업현장을 노인들이 지키면서 농기계 조작 미숙과 부주의, 열악한 도로 사정 등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장흥군 장흥읍의 한 농로에서 A(76·여)씨가 남편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화순군 춘양면의 한 시골길에서도 경운기를 몰던 A(82)씨가 2m 아래 논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15%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인은 집중력과 순발력이 약한 노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면서 위급시 제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2084건 중 피해의 74.6%가 60~80대 노인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스티브 호킹과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의 사고 역량이 인간의 뇌를 초월해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컴퓨터는 인간의 지적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며, 법률 분야가 지능적 프로그램이 인간의 지적 작업을 보조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허술한 안전교육과 농기계 특성상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시 판매업체를 통해 간단한 조작법이나 안전수칙을 듣는 것이 고작이며,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특수장치가 부착돼 있는 것도 아니다.

농촌도로 역시 좁고 경사가 심해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야간에 농기계 운행시 야광판을 부착하거나 야광조끼를 입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조작 부주의와 안전장치 미비, 열악한 도로 조차 회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농협, 농기계 제작회사 등은 노인을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농촌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교통정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사고 후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법조칼럼

컴퓨터가 법률가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고 상 영
광주고등법원 판사

지난 2011년 IBM의 ‘왓슨’ 프로그램이 퀴즈쇼에 출연하여 역대 인간 챔피언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이후 인공지능은 다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애플의 시리, 구글의 무인자동차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주식투자나 신문기사 작성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처럼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법률가처럼 생

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다.

컴퓨터가 법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컴퓨터가 법학적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가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튜링은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 상대편이 컴퓨터인지 아니면 진짜 인간인지 대화 당사자인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어떤 판결을 제시 받고 그 판결과 같은 법적 쟁점을 다른 판결을 찾으려는 작업을 지시받았는데, 인간인 법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 판결들을 찾아낸다면 그 컴퓨터는 법학적 사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법학적 사고 능력을 가진 컴퓨

터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법률가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가들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법적 쟁점을 다른 판결을 찾는 것은 어떤 법률규정의 적용을 위한 비교기준을 마련하는 것일 뿐, 문제의 사례가 검색된 사건들의 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법률가의 일을 할 수 없는 지능적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구나 법률가들은 참조판례와 같은 인용색인을 통해 관련 판례를 효율적으로 잘 검색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능적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현재에도 인용색인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상이 주로 대법원 판결에 국한되어 있고, 하급심 판결에 대한 검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인 판례 검색을 위

해 지능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법학적 사고 능력을 가진 프로그램은 판사들의 판례 검토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장 작성, 변호사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 업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BM의 ‘왓슨’이 출현한 퀴즈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인간 출연자 2명은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췄지만, ‘왓슨’은 오히려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의 엉뚱한 답을 내놓는 때였는데, 이 장면이 인간과 컴퓨터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스티브 호킹과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미래에 인공지능의 사고 역량이 인간의 뇌를 초월해 인류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컴퓨터는 인간의 지적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며, 법률 분야가 지능적 프로그램이 인간의 지적 작업을 보조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 고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단순화해야



김 백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스티브 잡스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됐다. 출시 당시 아이폰은 기존의 휴대폰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다.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순함(simplicity)이었다고 한다. 그렇다! 단순한 것은 질리지 않고 오래가며 보편적 설득력을 지닌다. 단순한 도구가 사용이 쉽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것은 인자성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건강보험공

단에서는 그동안 시작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차이를 이렇듯 하나로 통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발표하며 사회적 논쟁에 불을 당겼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도 전산의 도움 없이는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직원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한 보험자집단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공평한 부과기준을 정립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하며 직장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현재의 서로 다른 부과기준은 어쩔 수 없이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가입자의 제도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도 도입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근대화 시절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맞춰 설계한 건강보험제도를 이제 선진화,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게끔 개선해야한다.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 시켜서 누구든지 자신의 수입을 알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보험료를 재산보다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제도란 것이 즉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볼 수 있도록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단순한 디자인이 아이폰의 성공 요소였음을 밝힌 이유는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단순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서 우리 지역본부내 직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와 받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화와

하거나 방문을 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자신의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내 보험료는 앞 집 누구보다 왜 많으나? 옆집 누구는 보험료를 안내는데 왜 나는 내야하느냐? 등등 다양한 사례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찾아내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직원을 보면 안타깝고, 또 직원도 알기 어려운 다양한 부과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쫓긋 세우고 경청하고 있는 고객을 보면 한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보편 타당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립하는 데 사용하자.

동일한 보험자 집단에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부과기준을 단순화 시켜 세계 어디 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보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無 等 鼓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살다보니 외롭더라/ 내가 있어 웃을 수 있어 좋다...”

가수 안치환이 동창회에 다녀온 후 만들었다는 노래 ‘오늘이 좋다’의 가사 말 일부이다.

지난 12일 고교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30~40대 인생의 절정기에 교단에서 열정을 불살랐던 은사들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됐고, 제자들도 그사이 ‘하늘의 뜻을 알다’는 지천명(知天命)의 길에 들어섰다.

은사들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 어제일

이 들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우리가 졸업 60주년 때에도 만날 수 있을까?”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답했다. “그 때는 우리 나이가 80인데 얼마나 살아 있을까?”라며 웃었다. 그래서 결론은 자주 만나진 못해도 전화나 SNS를 통해 서로 안부를 전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절친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 흐뭇하면서도 아쉬운 시간이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의 길에 들어섰다.

연구원에 따르면 남성의 ‘건강수명’은 68.79세, 여성은 72.48세 라고 한다. ‘건강수명’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한다.

또 남성의 ‘기대여명’(77.65세)은 여성(84.45세)보다 짧다. 기대여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시간(남자 8.86년, 여자 11.97년)은 고행일, 당노병 등 만성질환을 앓으며 살 가능성이 크다.

안치환의 노래는 계속 이어진다. “남은 인생 통틀어서/ 우리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친구아/ 남은 너의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랄게. 오늘이 좋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건강수명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